

# 돼지콜레라 임상증상 및 양돈장 소독방법



이 재 춘

(한국 양돈 컨설팅 그룹, 한별 피그 클리닉)

## 1. 돈콜레라란 어떤 질병인가?

돈콜레라는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전염병으로 일단 감수성 돼지가 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에는 거의 100%이환이 되고 결국은 폐사까지 이르게 되는 무서운 질병이다. 물론 돼지의 저항력과 바이러스의 독력에 따라 증상 및 피해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과거 발생 농장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면역력이 없는 돈군에서는 거의 100% 가까운 폐사 손실을 보았다.(도폐사 포함)

일령 구분없이 자돈에서 성돈 까지 감염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감염된 경우 거의 폐사까지 이르게 되는 무서운 질병이다. 다만 돼지 이외의 동물에는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다.

주로 감염돼지의 분변, 오줌, 눈물, 콧물등을 통해 배출되는 바이러스에 직접 접촉하여 경구감염이 되며 사람이나 동물 또는 차량, 기구같은 기계적인 매개체로 인해서도 전파가 될 수 있다.

## 2. 돈콜레라의 임상증상

돈콜레라를 경험해 본 양돈인들은 돈콜레라의 무서움을 알고 있으며 처참하게 죽어나가는 돼지들을 보았을 것이고 따라서 대략적인 돈콜레라의 초기 증상부터 진행되는 상황

을 알고 있는데 이를 겪어보지 못한 농장에서는 초기에 돈콜레라인지 구분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돈콜레라 청정화를 위한 과정으로 백신을 전면 중단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는 재발병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만약 돈콜레라가 재발병이 된다면 얼마나 신속하게 현장에서 그 사실을 감지해내고 관계 기관에 알리는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임상증상이 혹시나 돈군에서 관찰되는 농장이 있다면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를 하도록 해야한다.

흔히 돈콜레라의 임상증상을 급성 콜레라와 만성콜레라로 나누어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바이러스에 따라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숙주의 저항력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며 또한 처음에는 독력이 약한 바이러스였더라도 감염돼지를 거치면서 독력이 강해지게 되는 이유 때문이다.

- 돈군에 최초로 돈콜레라 바이러스가 유입이 되면 소수의 돼지에서만 임상증상을 보이는데 활동이 둔화되고 침울해 보이며 식욕감

## <돼지콜레라 증상>

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활동이 둔화되는 감염 초기때(보통 감염 6일 이내) 체온이 급격히 상승한다.(42°C 이상) 그 후 진행과정 동안은 41~42°C 정도가 유지된다.

- 보통 초기 고체온 때 피부가 붉게 충혈이 된다.

- 감염 초기에 결막염으로 인해 눈에서 다량의 분비물이 나와 눈을 뜨지 못 할 정도까지 진행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일

반적으로 변비가 관찰된다.(후에 노란 수양성 설사로 진행이됨)

- 환돈들은 추위를 느껴 따뜻한 곳을 찾고 웅크리고 떨며 서로 포갠다.

- 많은 담즙을 함유한 노란색 구토를 한다.

- 소수의 환돈에서 경련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수 시간 ~ 수일내에 폐사한다.

- 질병이 경과하면서 초기에 감염되었던 돼지들은 수척해지고 후지 쇠약으로 뒤뚱거리며 잘 걷지 못한다.

- 질병의 말기에는 복부, 코, 귀등이 푸르게 변색된다.

- 급성인 경우 감염후 10~20일만에 폐사하고 만성형이라도 증세는 덜 심하나 대개 30일 정도면 폐사하게 된다.



▲경과가 진행된 증례에서 나타나는 허리와 체표의 자반



▲전형적 발증군. 하리에 의한 둔부의 오염, 후구창랑, 후구마비 등



▲비장의 출혈성 경색



▲대장 점막의 버튼성 궤양

- 임신돈에 감염시 태아의 미이라, 기형, 사산 및 유산이 늘어나고 허약자돈 분만으로 인해 번식성적의 저하가 두드러진다. 또한 자궁내에서 감염이 되었던 돼지는 면역 내성이 생겨 비교적 장기간 돈콜레라 바이러스에 저항을 하게 되며 증상도 경미하여 대개 6개월 이상 생존하기도 하나 결국은 폐사하게 된다.

- 돼지의 저항력에 따라 만성형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다음의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 : 질병초기의 상태로서 무기력, 침울, 체온상승 정도가 관찰된다.

2단계 : 수주가 경과되면서 식욕과 일반 제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고 체온도 정상수준으로

## 〈양돈장 소독방법〉

- ▶소독약 : 수산화 나트륨계제(소다졸, 세이프존등), 알데히드계(올비), 산성계제(버콘에스, 팜플루이드), 세정제(파콤플에이, 가드올), 크레졸, 생석회
- ▶농장 진입로, 출하대 주변, 그리고 각 돈사 입구에 생석회를 평당 1~1.5kg 정도 도포한다.
- ▶농장 출입차량, 특히 출하차량의 바퀴 소독 및 차체 분무소독.
- ▶출하 후 돈사 내외부 및 출하대 부근, 농장 진입로에 대한 청소와 소독 실시.
- ▶농장 출입 인원에 대한 소독시설을 농장입구에 설치하고 방역복 및 장화 제공.
- ▶농장내 인원도 외출 후엔 외부인과 동일하게 소독 실시.
- ▶후보돈 도입시 차량소독 뿐만 아니라 돈체 분무소독 실시.
- ▶1일 1회 돈사 내외부 소독 실시

회복이 된다. 1단계에서 항생제를 사용했다면 이 때 마치 호흡기 증상이 잡힌 것처럼 보여 질 정도이다.

3단계 : 다시 식욕부진과 무기력한 증상이 나타나며 체온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폐사율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만성 진행의 경우 돼지는 심한 성장 지연과 피부병변을 볼 수 있으며 보통 100일 이상 살기도 한다.

### 3. 양돈장에서 해야 할 예방적 관리

사실 돈콜레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감시를 하고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농장마다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장별로 자체적으로 해야 할 기본적인 예방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외부에서의 돼지구입은 후보 종돈 말고는 절대 하지 않는다. (청정농장에서 구입) 사육내력을 전혀 모르는 돼지를 떨이로 구입 해오는 것은 돈콜레라 뿐만 아니라 모든 질

병의 전파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 해야 한다.

- 도입돈은 최소 3주간 격리 사육한다.
- 외부 양돈장 출입은 가급적 삼간다.
- 출하차량 및 돈분 수거차량의 출입시 수세 및 소독 상태를 확인하고 한 번 더 소독을 실시한다.
- 출하차량이 농장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출하대는 가급적 농장 울타리에 설치한다.
- 외부 장비의 출입시에도 소독을 철저히 실시한다.
- 중고 기자재 구입은 가급적 자제한다.
- 농장외부의 동물 출입을 차단한다.
- 폐사돈의 사체는 소각 또는 매몰하며 방치하거나 농장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한다.
- 정기적인 혈청검사로 돈군의 상태를 감시한다.
-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오진을 막기 위해 전문 수의사 입회 하에 하도록 한다.
- 농장 진입로는 단일화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철저히 한다. **양돈**